

'4극3특 호남권 지역자율R&D' 본격 시동

- 과기정통부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호남권 시범사업... 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3대 분야 중심 지역 맞춤형 R&D 추진, 실증·사업화까지 연계
- 9월 4일(금) GIST 오룡관서 사업 설명회 개최... 사업 추진방향세부 연구과제 소개 및 질의응답

4극3특 호남권 지역자율 R&D 사업 설명회

광주·전남 초광역 자율 R&D로
완성하는 완결형 혁신 생태계

일 시 | 2026. 9. 4. (금) 10:00

장 소 |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 101호

주요내용 | 호남권 지역 자율 R&D 사업소개 및 RFP설명

문의처 | Tel. 062-715-4482, 4483

**사전등록
QR코드**

※ 현장등록가능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10	10' 개회 및 인사말씀	호남권 사업단장(박기홍 교수)
10:10 ~ 11:50	30' 호남권 지역자율R&D 사업 소개 및 9개 연구단 과제 제안서 설명	호남권 사업단장 및 사무국
	60' 호남권 지역자율R&D 사업 질의 응답	
	10' 호남권 지역자율R&D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설명	
11:50 ~ 12:00	10' 마무리	호남권 사무국

※ 발표 순서 및 내용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호남권



광주과학기술원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단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NOPOLI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남광주통합특활시

GIST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2026년 4극3특 호남권 지역자율R&D 사업 설명회' 포스터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호남권 지역자율R&D 사업단(단장 박기홍·GIST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이 오는 9월 4일(금) 오전 10시 GIST 오룡관 101호에서 '2026년 호남권 지역자율R&D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국비 131억 원 규모로 시작되는 '호남권 지역자율R&D 시

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3대 중점기술 분야의 세부 연구과제를 소개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과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호남권 지역자율R&D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이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4극3특'은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에서 설정한 권역 구분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4개 광역권과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권역을 뜻한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 R&D와 달리 지역의 산업·연구 역량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개발된 기술을 지역 내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호남권은 ▲반도체(인공지능(AI)·광반도체) ▲에너지(재생에너지) ▲모빌리티를 3대 중점기술 분야로 선정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AI 반도체의 고집적화에 따른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첨단 패키징·열관리 기술'과 다양한 산업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고신뢰성 AI·광·전력반도체 기술' 등을 개발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송전선로(Virtual Power Line, VPL) 기술', 나트륨이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 그린수소와 레이저 핵융합 등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 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나선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산업용 로봇 간 작업 전환이 가능한 'AI 자율제조 기술', 전기차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 상태와 잔존 수명을 판단하는 '배터리 진단·순환 기술', 도시의 교통·안전·재난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AI 기반 모빌리티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들 과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보유한 AI·반도체 연구·설계 역량과 재생에너지·모빌리티 실증 기반을 연계해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을 지역의 산업·공공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역 주도형 R&D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2026년 4극3특 호남권 지역자율R&D 사업 설명회'가 열리는 GIST 전경

이번 설명회에는 **산·학·연 연구자 및 관계자,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수 있으며, 박기홍 사업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호남권 지역자율R&D 사업 소개 및 과제 제안요청서(RFP) 설명 ▲질의응답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및 신청 절차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 연구과제의 내용과 과제 신청·선정 절차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박기홍 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구자와 기업이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발굴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과 사업화까지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호남권이 가진 AI·반도체,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분야의 강점을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역 산·학·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설명회는 포스터 내 QR 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